



청소년 마약 사용이 늘고 있다 ②

〈자료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 청소년 약물 남용 실태

청소년의 약물 남용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에 대한 현상진단이 먼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청소년 약물 남용에 대한 사회조사가 1989년도에 처음 시행되었고 이어서 1991년도, 1993년도에 연구용역사업으로 각각 시행되었다.

약물남용 실태 결과의 주요 내용을 분석해 보면, 첫째, 약물 남용의 다양성, 지역적 무분포성, 저연령화 현상 등을 보이고 있으며, 마약을 제외한 전 약물에서 약물 남용 청소년의 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약물의 최초 사용시기도 10세 전후로, 응답자의 10~20% 정도가 커피, 콜라, 드링크제, 진통제 등 흔히 구할 수 있는 약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약물사용의 원인과 정도는 초·중·고등학생 등 학생 청소년과 근로 청소년, 소년원생 등과 같은 비행 청소년 등 소속 집단에 따라 양상이 크게 다르게 나타났으며, 비행 청소년의 경우 3명중 1명은 치료를 요할 정도의 중독 청소년으로 나타났다. 남자 소년원생의 10.7%가 12세 이전에 본드 흡입의 경험이 있으며, 약물 경험도가 높을수록 비행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청소년 약물 남용의 경로는 일탈친구와의 접촉을 통하여 학습되는 것이 가장 높았으며, 부모의 음주·흡연 태도나 부모의 관심도가 자녀의 약물 남용과 관련성이 높게 나타나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각별한 관심이 요청되고 있다.

약물남용의 진행과정과 그 실태

약물남용으로 인한 정신적좌담이나 해독에 대하여 처음부터 자세히 알고 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 처음에는 새로운 경험을 얻기 위해, 또는 제한된 상황에서 특별한 효과를 얻기 위하여 약물을 시작하고, 몇 차례 거듭되는 동안 쾌감을 느끼게 되며 약에 취한 상태에서 더 좋은 느낌을 맛보기 위해 약물 남용이 늘어나게 되어 점차 습관화된다. 그러다가 주변을 의식하게 되면 은밀하게 사용하며 어느 정도 더 즐기다가 후일 적당한 때 자신만 결심하면 벗어날 수 있다고 합리화하면서 그날그날을 약에 취해 생활하게 되어 마침내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이 약물 중독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이다.

약물에는 술, 담배를 비롯하여 본드·가스 등의 흡입제, 진정제, 각성제, 환각제 등 그 종류가 실로 다양하다. 흔히 술, 담배, 커피

등은 일반적으로 별로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술, 담배야말로 마약류와 같이 우리의 건강과 행복에 커다란 손실을 가져다 주는 물질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 나라 학생들의 실정을 보면, 이미 국민학교 고학년일 때 본드흡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으로 본드를 코에 대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본드 흡입이 사회에서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왜 금지하고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 중학생이 되면 호기심도 많고 반항심도 어느 정도 시작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학교성적, 가정환경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쳐 고민이 생길 때, 주변 친구의 권유와 유혹이 있게 되면 별로 큰 죄의식없이 본드흡입을 시작하게 된다.

처음부터 환각상태에 들어가지는 않으며 몇차례 계속하다 보면 묘한 느낌과 재미를 맛보게 되어 친구들과 어울려 계속 본드를 흡입하게 된다. 이들은 본드 흡입이 인체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본드의 해독성이나 중독



일반적으로 술, 담배, 커피 등은 별로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술·담배야말로 마약류와 같이 우리의 건강과 행복에 커다란 손실을 가져다 주는 물질이다.

성에 대해서도 모르고 단지 술, 담배 정도의 차원으로 가볍게 생각한다.

본드 구입 초기에는 문구용 본드를 사용하다가 점차 습관성이 되면 공업용 제품을 사용하게 되며 주로 야산이나 뒷골목, 공터, 아파트, 옥상, 부모가 외출 중인 친구의 집, 하숙방 등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서 본드 흡입을 한다. 그 중에서 가장 선호되는 장소는 부모가 자주 집을 비우는 가정이나 인적이 드문 야산인데, 이곳에서는 환각에 들어가 마음대로 떠돌고 뛰어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흡입 방법은 비닐 봉지에 본드를 짜 넣고, 코나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이며, 또 튜브로 직접 냄새를 맡기도 하고 옷이나 형겅에 본드를 묻혀서 흡입하기도 한다. 때로는 학교의 수업 중 긴 소매 속에 본드를 감추고 대롱을 통해 흡입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감기환자처럼 마스크를 쓰고 그 속에 본드를 묻혀 냄새를 맡는다.

본드 흡입 경력이 1~2년 지나게 되면 환각을 추구하기 보다는 혼자서 은밀하게 방해받지 않는 것을 좋아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 이르면 약물 의존에 깊이 빠지게 되어 치료도 쉽지 않다. 본드 흡입 시 용기가 생기고 역제가 풀리기 때문에 사소한 일로도 대단히 끔찍한 범죄를 유발하며 때로는 성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일부 청소년 및 약물 남용 집단에서 아주 많이 남용되고 있는 약물인 러미날(루버킹)은 시중 약국에서 비교적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원래는 감기약으로 판매되며 대개

1회 복용량은 20정 내외인데, 강렬한 환각을 위해 40~50정 또는 100여정을 복용할 경우 횡설수설, 헛소리, 혼수상태가 되어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게 된다.

본드와는 달리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야산보다는 은밀한 장소에서 여러 명이 함께 모여 복용하며, 남·녀 혼숙을 하는 경우도 있다.

대마초는 초기보다 후기 청소년기에 많이 사용하고, 본드나 러미날 등 다른 약물을 경험한 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처음부터 대마초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대마초는 법적으로 강력한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은밀한 상태로 사용하며, 주로 유흥업소 주변이나 음악을 직접 연주하는 청소년 등에서 많이 남용한다.

필로폰(히로뽕)은 국내에서 밀조되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지 않아 전국적인 조직망을 통해 우리 사회 곳곳으로 확산되는 경향이다. 또한 본드나 대마초와는 달리 판매자의 의도적인 유혹을 받아 남용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필로폰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까닭은 이들의 유혹 수법과 접근 과정이 상대방의 취약점을 재빨리 간파하여 체중 감량제, 피부 미용제, 피로 회복제, 진통제, 감기약, 신경통약, 졸음을 없애는 약, 술개는 약 등으로 유혹하여 처음 몇회는 무료로 제공하고 약효가 입증되면 경계심을 풀게 한 후 판매를 시작한다.

(계속)